

중한 농민소설 약론

- 罗伟章과 이문구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광재
(중국해양대)

차 례

- | | |
|------------------|---------------------|
| 1. 서론 | 4. 이농과 귀농의 진통에서의 발전 |
| 2.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수궁 | 5. 결론 |
| 3. 신분 차별과 평등 상상 | |

1. 서론

중국 개혁개방과 함께 진행된 현대화 건설이 추진되면서 근년래 대량의 농민들이 도시로 흘러들어왔고, 이른바 ‘농민공’이란 집단이 형성되고 날로 커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그들의 물질생활이나 정신생활을 반영한 ‘농민공소설’도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장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도시화 과정이 빨라지는 와중에 역을 넘는 농민들이 대대손손 살아오던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말그대로 생활벌이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 도시로 흘러든 농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경제 질서에 편입되었고, 그리고 ‘농민공’이란 중국 뉘새가 물씬 풍기는, 농민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이름도 얻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도시와 농촌지간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농민공’이란 이름 자체가 바로 그들의 신분에 대한 일종의 사회 명분일 것이다. ‘농민공’이란 특수 무리의 산생과 함께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서사담론도 가장 생

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6호

산성 있는 문학 주제의 하나로 부상되었다. 그리고 창작작품과 창작행위에 대한 비평도 지금에 와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알다시피 20, 30년대 중국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가 끊임없이 팽창되고 그 결과 소농경제의 몰락과 농촌생활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노신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충격 밑에 일어나는 농민들의 ‘이농’과 ‘저항’을 작품 창작의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농촌과 농민들을 다룬 소설들은 오늘날까지 줄곧 이어져 왔다.¹⁾ 작가들은 이러한 창작을 통해 농민들이 도시로 흘러드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헤치고 있다. 그러므로 ‘농민공’들의 생존 상황을 반영한 소설연구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것의 서사담론을 떠받치고 있는 사회문화가치를 연구하고 그것이 텍스트에 서의 구체적인 방식을 연구하는 것일 것이다.

지금 적지 않은 작가들은 농민공의 생존상황을 표현할 때 흔히 강한 사회비판적 의식으로 농민들의 여러 가지 아픈 체험을 펼쳐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주제와 사회현실지간의 긴장한 관계는 일부 논자들의 지적처럼 결코 현대화의 비판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²⁾ 사실상 시장경제가 추진하는 현대화와 현대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날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총체적인 역사 배경에서 현대화를 떠난 혹은 외면한 그 어떠한 사회 공동체의 상상도 모두 합법적인 의의, 적어도 합리적인 현실적 의의를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화의 문화적 가치를 서사담론의 방식으로 삼는 작가의 기본 입장은 그들의 공통 의식이나 무의식의 선택으로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노출된 농촌의 피해와 농민의 이농향도, 그로 인한 농촌공동체의 해체과정을 그린 작품들이 70년대 중요한 창작 모티브의 하나였다. 사실 70년대의 한국문학에서 농민문학은 중요 성과를 거두었고, 농민문제도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산 실정이다. “농촌을 모르고서 한국의 사회 현실을 안다고 할 수 없고 현실을 모르고서 그 현실에서 태어난 문학을 제대로 안다고 하기 힘들 만큼, 오늘의 우리 농촌에 대해서 최소한 일정한 안목이라도 가지는 것은 모든 지식인의 빼놓을 수 없는 자격 요건이라 하겠다”³⁾는 어느

1) 노신의 「아Q정전」, 노사의 「낙타상자」, 고효성의 「진환생상성기」 등 작품을 들 수 있겠다.

2) 丁帆, 「『城市异乡者』的梦想与现实」, 《文学评论》, 2005年 第4期.

3) 염무웅, 「농촌현실과 오늘의 문학」- 朴敬洙作 「凍土」에 관련하여, 《창작과 비평》, 제V권, 제3호, 1970년

논자의 지적처럼 농민문학은 그 사회 전체를 파악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의 대부분이 농촌이요 국민의 절반이상이 아직 도 시인이 아닌 마당에서 역사적 결정권에서 소외되었으면 소외된 대로의 그들의 삶이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삶을 자상하게 파헤치는 것이 책임있는 작가 들의 임무일 것이며, 또 것처럼 소외된 결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빠져 있는 中毒 상태를 밝히는 것이 참된 예술가의 본분일 것이다”⁴⁾라고 작가의 사명을 강조 하여 지적하였다.

사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도 근대화 과정에서 피해해져가는 농촌과 소외되어가는 농민을 그린 성과작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이를테면 이문구의 「암소」, 「관춘수필」(연작), 「우리동네」(연작), 송기숙의 「자랏골의 비가」, 「암태 도」, 김춘복의 「쌈짓골」, 문순태의 「징소리」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70년대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이 겪는 변화와 그런 변화 속에 처한 농민들의 고통 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탄생된 농민공의 생존 실태를 그린 작품을 주로 살피되, 70년대 한국 농민소설과의 비교 속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기본 텍스트로 중국의 罗伟章⁵⁾의 「我们的路」와 이문구의 「우리동 네」(연작)를 대비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중심은 중국 농민공의 실존 상황을 그린 「我们的路」에 있다. 따라서 이문구가 왜 70년대 한국 농촌을 작품화했는가 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 밖에 있고,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형상화했는가 하는데 있다. 즉 이문구 작품에서 그려진 70년대 한국 농촌사회 현실과 문제점들이 중국 개혁개방시기의 농촌 사회 현실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그럼으로써 중국 농촌문제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가을호, p.474.

4) 위은 글, pp.480~481.

5) 罗伟章, 男, 1967年 四川省 宜汉县에서 출생, 1989年 重庆师范大学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上海首 届作家研究生班에서 공부하고 있음.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饥饿百年』, 『不必惊讶』 중편소설집 『我们的 成长』, 『奸细』 등이 있음. 일찍 人民文学奖, 小说选刊奖, 中篇小说选刊奖, 小说月报百花奖, 四川文学 奖 등 문학상을 수상함. 巴金文学院签约作家이고 中国作家协会会员으로 활동 중.

2.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수궁

현대화의 사회문화 시스템은 시장교환관계에 의존하여 형성된다. 농촌사회도 시장교환에 참여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대부분의 소비수요를 만족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자급자족의 특징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교환에 의해 형성된 도시 생활에서 농민공들은 이미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교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생존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사실 도시화는 곧 현대화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 척도의 하나이다. 이렇게 형성된 농민공들의 생활의 장은 필연적으로 이른바 ‘현대’원칙에 따라 도시에서 생존해야 한다.

사실 교환 시스템은 현대인의 공통적인 생활방식이다. 다만 농민공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거나 전혀 개발되지 못한 그들의 원시 몸동아리뿐이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존을 위해 조건이 악렬한 생산과 소비 지역에서 힘들고도 보수가 저렴한 일을 담당할 뿐이다.⁶⁾ 심지어 직접 육체를 교환함으로써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국광대(鞠廣大)부자, 공장 생산라인에 몸을 맡긴 이미봉(李美凤), 술집에서 일하는 길가(吉佳), 길미(吉美), 생활쓰레기를 줍는 향향(香香), 그리고 머리방에서 매음을 하는 영득진(宁德珍)이 그들이었다⁷⁾. 이들 농민공들에게 도시생활은 말 그대로 굴욕과 눈물 그 자체였다. 그러나 농촌에 남아 농사일에 종사하는 것에 비해 그들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노동력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불한 대가는 그들에게 있어 나름대로의 긍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80년대 전기 중국 농민들은 경제체제 개혁으로 얻은 토지로 관환에 가까운 기쁨에 빠져 있었다. 토지의 경영권이 확실하게 농민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자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종교적인 감정은 거세게 되살아났다. 그들은 전통적인 농경생활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나 80년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농촌경제

6) 2005년 광둥성 총공회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76.3%의 농민공 월임금이 1000원 이하이고, 500-1000원이 63.2%, 500원 아래가 13.2%를 점한다. 때문에 돈을 벌이자면 꼭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산둥성은 이보다 더 낮았는데, 월수입이 300원 아래가 40%, 300-500원 사이가 43.7%이고 500원 이상이 16.3%를 점했다.

7) 孙惠芬, 「民工」, 《当代》, 2002年 第1期. ; 王手, 「乡下姑娘李美凤」, 《山花》, 2005年 第8期; ; 李肇正, 「傻女香香」, 《清明》, 2003年 第4期; ; 李肇正, 「姐妹」, 《钟山》, 2003年 第3期.

의 파탄은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환상을 여지없이 깨버리고 말았다. “1985년부터 우리나라 농민 수입의 증장 속도는 점차 하강되었는데 1980년~1988년의 년평균 증장을 15.1%에서 1985~1988년의 4%로, 1989~1991년에는 0.7%로 떨어졌다.”⁸⁾ 농촌경제는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어 토지는 다시는 농민들의 기본 물질적 생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시로 홀려들었지만, 그들을 맞아주는 현대화 도시, 혹은 현대화 과정에 처한 도시는 결코 순수히 그들을 맞아주지 않았다.

농민공은 약세 집단에 틀림없다. 그들과 대립을 이루고 있는 자본의 힘은 너무나 강대한 존재였다. 오늘의 중국에서 자본과 채부로 대변되는 새로운 계층은 이미 합법적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은 날로 소외되고 다시 사회 최하층의 존재로 전락되었다. 罗伟章은 사회의 고난을 예민하게 감수하고 농민공들의 생존 곤경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我们的路」에서 작가는 다른 한 주인공인 春妹의 형상 창조를 통해 시장교환에 멎은 농민공들의 아픈 상처를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다. 春妹는 이제 갓 열여섯살 밖에 안 된, 그러나 이미 어린 애기를 낳은 미혼모가 되었다. 일년 전 생활난과 아버지의 남존여비 관념 때문에 오빠의 해마다 비싸만 저가는 학비를 벌이기 위해 광둥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일년 간 일했지만 돈을 전혀 벌지 못했다. 대신 “신분이 불명확한 아이를 얻어서 쓸쓸하게 집에 돌아갔을 뿐이었다.”⁹⁾ 고향에 돌아온 春妹의 사정은 광둥에서 일할 때보다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집에 어린 애를 업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별말 없이 회의하는 눈치만 보였고, 돈있는 남자에게 시집갔다는 사실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창피하다며 집안 식구를 못살게 굴었다.

처음 春妹가 설을 맞아 집에 돌아오고, 돈많은 남자에게 시집갔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모두 좋아했다. 어린 나이에 애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어린 나이에 외지로 일을 나간 것도 돈을 벌여 부모의 아들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돈있는 남자에게 시집갔으니 기쁨 외에 무슨 할말이 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잠시였어요.” “내가 돈 한푼 가져오지 못한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표정은 금방 어두워졌어요……” “요새 우리 집안

8) 朱力, 『中国民工潮』, 福建人民出版社, 2002, p.81.

9) 罗伟章, 『我们的路』, 《小说选刊》, 2006, 第一期, p.1.

분위기는 정말 무덤에 다름 아니에요.”(12면)

春妹는 향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다. 그에 비해 오빠는 대학입시만 여섯 번 보았다. 그러나 번마다 낙방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계속 공부시키고, 대신 春妹는 광동으로 돈벌이를 보낸 것이다. 광동으로 온 春妹는 처음 미장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음을 하는 것으로 돈을 벌었다. 春妹의 말처럼 한달 4백 원의 수입으로는 집으로 돈을 부치기는커녕 자신의 생활마저 영위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여럿 남자에게 몸을 팔기보다 한 남자를 따르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매달 2000원 주겠다는 그 남자는 옷 두 벌에 아이만 하나 남겨놓고 반년 후에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생존 상황은 많은 작가들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바보 향향」에서 향향의 한마을 여자애들은 빈곤으로 매일 밤 마을에서 몸을 파는 돈으로 생활에 보탠다. 그런데 하루밤 가격은 5원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향향의 어머니도 딸에게 몸을 팔 것을 강요하게 된다.

이처럼 농민공이 농사일에 종사하였을 때 실현하는 노동력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한다고 해서 농민공들의 생존근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시장경제의 역사적 합리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전환될 때 농촌 여자애들이 몸을 파는 행위는 필연코 서사담론가운데서 매음과 사회윤리지간의 긴장한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야만 육체교환의 방식으로 실현한 노동력 가치를 시장이 제공한 기회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 비판을 일으킬 수 있는 명제를 시장 이데올로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양민을 창녀로 만드는 전통 서사패턴에서 여성이 몸을 파는 이야기는 흔히 강렬한 사회비판의식을 전달한다. 이때의 여성은 특징적 사회역량의 작용 밑에 창녀로 윤락¹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농촌여성들이 도시에 들어와 몸을 팔게 되는 스토리 전개에서는 몸을 팔아야만 하는 외부 역량에 대한 적극적인 묘사가 없다. 그녀들은 육체를 교환기제에 편입시켜야만 소비시대의 이른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하여 자주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작품 속에는 외력의 강압도 없고 주체 또한 매음 행위에서 오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매음행위에

10) 老舍의 「月牙儿」는 대표적인 소설이다.

대한 비판의식이 서사에서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강가미(康嘉薇)는 아무런 주지도 없이 몸을 팔아 상업과 정치상의 성공을 이룩한다. “하느님이란 원래 돈이란 말이야. 제길랄, 돈이란 정말 종단 말이야! 돈도 없는 놈이 무슨 존엄을 지켜?”¹¹⁾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 돈을 벌이는 가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금전을 가늠하는 절대적 기준은 금액일 뿐이다. 이른바 ‘몸을 버리고’ ‘정조를 잃는 것’은 벌써 현실을 판단하는 의의를 상실했던 것이다. 주체가 초조해하는 것도 교환에 편입될 수 있는 신체 자원이 없음으로 ‘몸을 버리’거나 ‘정조를 잃’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현대화 계획의 역사적 합리성은 이미 작가들의 공통적 의식 전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환에 편입된 농민공들의 고단하고도 굴욕에 가까운 노동은 동시에 미래 생활에 다다른 유일의 경로이기도 했다. 작가들이 서사에서 비판적 의식을 표현했다면 신체를 교환에 편입시키는 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환을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와 역량이었다¹²⁾. 농민공의 ‘육체’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 초래한 교환 중단과 약세 집단에 대한 약탈은 필연적으로 주체의식의 사회 현대화 체제를 완전하게 구축할 것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체제는 교환관계 위에 건립된 시장경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문구의 「우리동네」에서는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 와중에 붕괴되는 농촌을 형상화하고 있다. 근대화의 파괴적 위력은 자족적인 농촌공동체를 해체하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공동체의 해체원인은 안과 밖에서 동시에 주어지는데, 외적 요인은 경제적 빈곤을 낳고, 내적 요인은 윤리적 타락의 양상으로 나타난다.¹³⁾ 알다시피 「우리동네」는 이미 근대화된 농촌의 현실을 해부하고 있다. 김씨, 황씨, 리씨, 최씨, 정씨, 류씨, 강씨, 조씨로 명명되는 농민들을 각 단편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본주의적 근대가 완료된 농촌현실의 풍속을 그려낸다. 즉 70년대의 한국 농촌에서 근대화란 무엇을 의미하고, 그 근대화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문구에게 근대화란 일단 절

11) 裴蓓, 「南方, 爱你说不出」, 《小说月报·原创版》, 2005年 第4期.

12) 孙惠芬의 「民工」, 孙春平의 「包工头要像鸟一样飞翔」(《钟山》, 2003年第2期), 宋剑挺의 「麻钱」, 王手的「乡下姑娘李美凤」 등 소설들이 여기에 속한다.

13) 신종환, 『한국소설의 서술양식 연구』, 한국문화사, 2004, pp.87-88.

대적 빈곤으로부터 상대적 빈곤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이 절대적 빈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상대적 빈곤이 심각한 문제인 까닭은 그것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증폭시켰을 뿐더러 농민의 정신과 욕구까지를 타락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보다 더 큰 문제는 근대화의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농촌 근대화란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일 터이다. 그러나 작가가 보기에 상황은 정반대이다. 농민들이 근대화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¹⁴⁾

이처럼 두 작가는 모두 근대화가 가져온 농촌의 피해와 농민의 소외와 희생을 작품에서 그려주고 있다. 다만 이문구는 근대화가 완성된 후의 농촌과 농민문제를 묘사하였다면 罗伟章은 현대화 과정에 처한 중국 농촌사회, 그리고 농민의 희생과 분투를 적고 있다. 두 작가는 모두 농촌사회의 와해와 농민의 소외에 깊은 동정과 이해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전통윤리가치의 추락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원리와 현대화가 농촌, 특히 농민들에게 가해지는 어려움을 구조적 모순관계 속에서 깊이 있게 파헤치고 있다. 그러나 이문구에 비해 罗伟章의 비판의 심도가 못한 감을 준다.

3. 신분 차별과 평등 상상

농민의 도시로의 대량 유입은 도시와 농촌지간의 차별을 심화시켰고, 또한 농민공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현실로 되었다. 알다시피 신분이란 특정적 사회구조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위치이다. 즉 신분이란 지위에 다름 아니다. 한 사람의 신분은 곧 그 자신이 처하고 있는 사회관계 체계에서의 지위이다. 역할은 신분의 구체적 표현으로 일정한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공에게서 신분과 역할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많은 사회 학자들이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어색한 단어는 바로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 질서 속에서 형성된 절대적인 이원 호적제도에 의해 생겨난 것이고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극복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도시와 농촌의 서로 다른 생활모습, 수입수

14) 민족문화사 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p.22.

준, 교육 정도, 윤리가치관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중 수입수준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차별에서 기인한 서로 다른 체형, 외모, 언행, 심리 등 여러 면의 차이는 농민공들로 하여금 언제나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도시와는 무형의 간격을 보유하게 하였다. 농민공 스스로가 이렇게 자각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중국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 현재 매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농민공’에 대한 개념적 서술은 또한 외부에서 강제로 도시인과 다른 특정 신분집단이라는 방식으로 ‘농민공’을 규정짓고, 따라서 도시인과 농민공의 간격을 더욱 넓혀 놓고 말았다. 신분 기시에 가까운 이러한 규정은 농민공의 도시 이방인이라는 의식을 더욱 강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도시에 편입되고 도시에서 자신의 살림을 꾸리는 것은 그들의 오랜 상상이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농민공에게 있어서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소설 「死迷」의 주인공 이소모(李小毛)는 비록 도시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도시 가치체계와 전혀 어울리지 못한다. “도시인이 먹고 입고 자는 것은 시골사람과 다르고 하는 말도 시골사람과 다르다. 이걸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의 속궁리와 생각, 사물에 대한 이해는 모두 시골사람과 거리가 너무나 멀다. 이것은 항상 이소모를 궁지에 빠지게 했다.”¹⁵⁾ 마찬가지로 소설 「명혜의 크리스마스」¹⁶⁾에서도 도시인에게 시집가려는 여주인공이 결국 자살하고 마는 운명을 그리고 있다. 어느 논자의 지적처럼 “우리는 주인공이 죽음으로 이르는 최후 시각에 육체적으로는 이미 도시인이 되었지만 정신과 영혼은 도시 문명에 포용되지 못하는 비극적 결국을 볼 수 있다.”¹⁷⁾

주인공 大寶는 사천 동북부에 자리 잡은 고향을 떠나 5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너무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 있어 이제 그들의 모습까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가물가물한다.

술직히 말해서 난 이미 그들 모녀의 모습을 잊었다. 내가 집문을 나설 때 애는 생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당연히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테지만, 이제 마누라의 생김새까지 잊어버렸다. 밤에 마누라를 생각할 때면 이제까지도 이 모습이던 것이 금새 다

15) 王梓夫, 「死迷」, 《北京文学》, 2000年 第12期.

16) 邵丽, 「明惠的圣诞」, 《十月》, 2004年 第6期.

17) 丁帆, 앞의 글.

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가물거리며 종시 고정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집을 한번 다녀와야 하겠다.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¹⁸⁾

이렇게 고향생각, 가족 생각으로 5년 동안을 외지에서 살았다. 이 5년 동안 大寶는 시멘트공장, 석재공장, 건축현장을 전전공공하며 정말 죽도록 일만 했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그의 노동환경이나 생활 수준이나 신분적 지위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의 헌신적인 노동으로 고향에 남은 가족들의 생활이 향상된 것도 아니었다. 5년 동안 집에 부친 겨우 3,100원 외에 남은 것이란 집으로 돌아갈 차비 밖에 없었다. 건축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농민공 賀兵은 공사장에서 추락하여 시신으로 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주인공은 다른 농민공과 함께 몇 개월 간 체불한 임금을 받기 위해 굴욕을 감안하면서 감독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러나 감독은 체불 임금을 주겠다면서 약속을 한 그 이튿날로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세 번째로 찾은 건축현장 사정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었다. 감독은 大寶를 포함하여 12인의 두 달 임금을 주지 않고 있었다. 더욱 심한 것은 설에 집에 갔다가 제때에 공사장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두 달의 임금 천원도 못 받게 될 형편이었다. 大寶는 정말 두 달 임금을 버릴 비장의 각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이처럼 농민공은 자신의 노동 결실을 자기 스스로 장악할 수 없었다. 주인공 大寶는 대학입시에 합격했으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고 농민공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단지 농민공이란 이유 하나로 그들은 마음대로 유린하고,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존재로 된 것이다.

중국의 경제, 문화발전 수준으로부터 볼 때 도시와 농촌은 완전히 서로 다른 이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구조는 장기적인 시일을 거쳐 형성된 역사적 침적물로 상품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구체적 표현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농민이 도시로 흘러드는 것은 역사와 경제발전의 필연이다. 그러나 신분적 차별이 낳은 사람과 사람지간의 불평등 관계는 농민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농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적 신분은 강한 사회비판의식을 전달한다. 평등을 갈망

18) 罗伟章, 앞의 소설, p.4.

하는 사회상상은 서로 다른 문화가치체계에 기반한다. 이를테면 모순, 오조상, 엽자 등 좌익소설가들에게 도시와 농촌간의 불평등은 더욱 큰 범주인 계급의 불평등에 속한 것으로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정치담론이 추구하는 평등상상이었다. 현재 농민공에 관한 서술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별과 이것이 초래한 농민공이 기사를 당하는 주요 원인은 경제 형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집단의 경제상의 빈부 분화는 결코 좌익작가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계급 착취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의 진정한 원인은 서로 다른 집단이 시장교환 가운데 점유한 자원의 차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사에서 농촌(농민을 포함하여)의 빈곤은 주요하게 시장과 관계된 두 개 원인이 있었다. 하나는 낙후한 농촌 생산관계가 낳은 노동생산 효율의 저하는 필연코 시장교환 시스템에서 실현해야 하는 노동력 가치를 극히 저렴하게 만들었다. 다음 농촌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시장교환의 변동리에 처해 있다. 흔히 정보가 폐쇄되고 교통이 불편한 등 원인으로 농민들은 효율적으로 시장경제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원인으로 농촌은 빈궁하기 마련이다. 장항향, 호학문 등 작가들은 이 두 원인으로부터 농촌의 빈궁을 묘사하고 있다.¹⁹⁾

농촌생산기술조건이 낙후하고 인프라 시설이 불완전한 것은 중국의 장기간의 계획경제 밑에 전개된 사회현대화 실천구조가 낳은 기형아이다. 즉 시장교환을 부정하는 도시와 농촌이란 이원 사회구조 설계에 기인한 것이다. 유청은 〈창업사〉에서 험오의 필치로 집에 여량이 있는 부유농민이 국가의 알곡 통일 구매가격이 너무 낮아 자유시장에 가서 판매하는 행위를 묘사하면서 자유시장을 없애야 한다는 긍정적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층적인 서술을 떠난다면 우리는 쉽게 농민들이 국가 산업화를 위해 지불한 대가를 알 수 있다. 시장의 공수관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노동력 가치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부정당하고 농민들은 다만 정책이 규정한 저가로 국가에 알곡을 판매함으로써 도시의 산업화 건설을 지지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농촌의 축적 부족으로 발전 정체를 낳은 것이다. 이처럼 농민들은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 막대한 공헌과 희생을 감안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들의 생존형편이 좋아진 것은

19) 冉正万的「奔命」,《人民文学》,1999年 第4期,张抗抗的「芝麻」,《钟山》2003年 第5期,胡学文的「一个谜面有几个谜底」,《草原》2005年 第5期,里快的「菜市」,《草原》,2005年 第4期.

아니었다. 어쩌면 더욱 심각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罗伟章은 바로 시장담론을 통해 정면에서 상술한 역사적 결과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현실 속에서의 신분차별이 왜곡된 시장기제가 낳은 기형아임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지금은 오로지 시장경제의 충분한 발전을 통해 평등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 통리로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소설들은 도시에 기거하는 농민공들의 신분차별이 가져다 준 아픈 체험을 묘사했지만 그러나 시장가치에 기반한 서사담론은 마침내 이러한 신분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었다. 소설 〈시골길에 선 도시여인〉에서 주인공인 농촌 청년 맹호자(孟虎子)는 도시 여노동자인 양동(楊彤)을 사랑한다. 하지만 계획경제시대의 사회환경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별은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장벽이었다. 시장경제시대의 도래와 함께 맹호자는 공장을 꾸리고 실직한 양동을 기술지도로 초빙하게 된다. 두 사람에겐 이미 각자 자기의 가정이 있었지만 맹호자는 끝내 양동의 몸을 허락 받는다. 이처럼 경제 불평등이 낳은 일련의 불평등 가운데서 성자원의 불평등한 점유는 가장 표현력이 강한 것일 것이다. 농촌 여성이 도시에서 매음하고 혹은 육체를 자본으로 삼고 도시인에게 시집감으로써 농촌을 벗어나는 것이 모두 농촌에 대한 도시의 성악탈을 구현했다면, 농민공이 도시 여성의 몸과 사랑을 얻는 것은 도시와 농촌지간의 차별의 최후 보루를 깨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농민영웅은 서사에서 모두 시장경쟁의 승자였다. 이것은 당연히 시장경제가 사회평등을 실현하는 면에서 가지고 있는 적극적 의의에 대한 유력한 암시인 것이다.

그러나 농민이 도시에 들어와 상업적 성공을 이룩한다는 것은 신화 창조에 가까운 것으로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다. 절대 대부분은 大寶처럼 여러 노동현장을 전전공궁하며 도시로부터 오는 모든 억압과 억울함과 분노를 감안해야 할 따름이다.

수세기에 걸쳐 완성된 서구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20~30년 사이라는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따라갔던 한국의 경우는 그러한 농공차별과 노동차별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책적으로 채택되어 적용되는 근대화는 곧 산업화이며, 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도시화로 이어졌다. 이는 다시 과잉도시의 불안정한 형태도 진행된다. 농촌은 위로부터 근대화로 인해 농촌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

를 겪어야만 했다. 특히 농민의 소득 정체, 소작의 증가, 농민의 도시 진출 등이 대표적인 문제였고, 이는 공업중심의 산업화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짧은 기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물질세계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신세계의 미숙성을 보인다. 이러한 물질과 정신의 괴리감은 인간으로 하여금 부에 집착하게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가지는 다른 모든 가치를 버리고라도 물질적 가치를 선택,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다는 그릇된 생각을 낳게 한다. 인간은 순수성까지도 상실하게 하고,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²⁰⁾

급속한 근대화는 예전의 폐쇄적, 자급적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며 시장경제에 영향을 받는 상업적 농촌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문구는 바로 작품에서 농업을 등한시하고 투기꾼들의 거간 노릇을 하며 한몫 잡으려는 농민들의 변화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농한기 한철에 한꺼번 올리면 차 한잔 마실 새에 삼 년 농사지은 게 나오는데, 어느 해웃값 외상 두고 살 늬이 집구석에서 여편네 엉덩이 튼날 때만 지다리구 앉았겠어. 천동읍내 복덕방 마흔일곱에서 반이 농사꾼 것이면 한 군데에 다섯만 붙어두 백 명이 넘는다는 애긴디, 나와 있는 백 명이 집에 들앰에 있는 백 명만 못해서 줌심값 찾값 대웃값 교통비루 하루에 오천 원씩 질바닥에 깔어가며 칸짓집 들무새 쏘맴기듯 헐 거여. 백 명이 뛰여. 다방 약방 대선방 구둣방, 이발소 제재소, 양복점 철물점, 농약상 씨앗상, 사료 가게 구멍가게…… 길가생이에 존화 달린 집마다 무어하 소개쟁이가 미어지는데.²¹⁾

그러는 동안 들먹은 여편네와 소갈머리 없는 자식들의 들음들음에 쫓대 없이 돈을 축낸 집도 한둘이 아니었다. 돈놀이를 하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두 손 털었다는 소문이 그치지 않고, 서울, 대전에 다니며 가게 터를 속아 계약하여 계약금이나 떼이고, 개인택시를 샀다가 한 번의 교통사고로 가진 것을 모개홍정한 사람들이 늘어만 갔던 것은, 비육우를 비롯한 양돈, 양계, 고등소채 등의 부업마저, 농협의 농축산물 수입과

20) 심지현, 「1970년대 소설의 사회변동 수용 연구 : 이문구, 윤홍길, 조세희의 연작소설을 중심으로」, 대구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4.

21) 이문구, 『우리동네』, 민음사, 2000, pp.333~334.

계통관매로 외래품에 치어버려 밀천도 못 추린 악몽에 넋더리가 나면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이 농업이란 사실을 그들이 터득한 까닭이었다.²²⁾

전통적 규범의 상실과 윤리적 타락은 도시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농어촌공동체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 삶의 붕괴를 가속화한다. 이문구는 바로 창작을 통해 근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순박하고 인정 많았던 전통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작가들의 작품가운데서는 근대화의 실현이 농촌공동체에 가져다 주는 심각한 전통 가치의 붕괴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 물론 罗伟章은 작품에서 春妹의 형상을 통해 전통 윤리관의 붕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문구처럼 전통가치의 훼손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문구와 달리 우리는 중국 작가들의 작품에서 오히려 성공의 실례들을 더욱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즉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이룩함으로써 도시의 힘 있는 집단이 되는 인물형상들이 이러한 서사담론에서 대량 존재한다. 그들의 형상 창조를 통해 시장의 힘을 빌어야만 도시와 농촌의 차별이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작가들은 너무 쉽게 도농의 차별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농촌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다시는 안락한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세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 도시 변두리에서 농민공으로, 도시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4. 이농과 귀농의 진통에서의 발전

수천 년 이래 중국 농촌의 생산관계와 윤리가치의 자족감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방식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안정된 농민의 심리구조도 형성하여 농

22) 위의 책, pp.319-320.

았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기반한 사회현대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개체의 생존은 다시는 자신에게 주어진 안정적인 땅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변화를 거듭하는 시장에 의해 실현해야만 했다. 이러한 시장원리는 결국 이농과 귀농의 아픔을 유발하고, 또한 반복되는 이농, 귀농을 통해 농촌은 변화발전하고 농민들은 변하고 있었다.

“귀향”은 농민공의 생활과 불행을 묘사한 문학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도시에 들어온 농민공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면서 거의 모두가 도시에서의 방랑과 귀향이라는 두 가지 선택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방랑은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올라오는 것이고 귀향은 도시를 떠나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살고 있는 농민공들에게 농촌은 영원히 그들의 근거지이고 정신적인 거주지이다. 그리고 중국사람은 전통적으로 고향이나 집을 그리워하는 감정적 정서가 짙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귀향은 마음 정서 깊숙이 자리 잡은 떼어버릴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되었다. 농민공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들이 도시에서 살면서 현대적인 것을 받아들이고도 고향에 잘 내려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마음의 안정을 잃은 농민공들에게 있어서 귀향은 그토록 절박하고도 또한 어려운 문제였다.

「我们的路」에서 주인공 大寶는 반복하여 올해에는 꼭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하여 보따리를 싸들고 어느 날 밤 몰래 공사장을 빠져 나왔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면 공사장 감독이 정한 시간대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러면 2개월간 한 노동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만다.

진정으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두 달 임금이었다. 그 두 달 임금은 유력한 두 손처럼 나를 강하게 붙잡았다. “나를 놔, 집에 갈거란 말야” 나는 그들을 향해 외쳤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를 놓지 않았다. “바보야, 지금 가서 표를 산다면 초이튿날이나 초사흘날의 것밖에 살 수 없단 말이야. 길에서 며칠 더 머문다면 초닷새날 궁정코 돌아오지 못하거든. 초닷새날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린 다시는 네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거든”

이것은 확실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농민공에게 있어서 한푼이라도 가족과 같다. 내가 어떻게 자기의 가족을 남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언제나 땀만 바지

를 입고 다니는 외국 신사같은 감독에게 말이다. 그 감독에게는 돈이 얼마든지 있다. 내가 내 돈을 그에게 준다고 해도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담배 연기가 자오룩한 도박판에서 아주 쉽게 남에게 건네 줄 것이다. 아니면 킬러처럼 냉혹한 표정을 지으며 금방 놀아난 아가씨의 얼굴에 팽개칠 것이다.²³⁾

大寶는 이렇게 귀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두 달 임금은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리고 돈의 입을 빌어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당신이 정월 초다섯날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돈을 잃게 될 것이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써겠다는 공사장을 다시는 찾기 어려울 테니까요. 도시가 하늘보다 넓다는 것만 보지 마세요. 도시에는 공사장이 곳곳에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는 당신의 것이 아니고 공사장도 당신의 것이 아니예요.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발자국도 내딛기 힘들어요. 당신의 주위에는 금성철벽으로 에워싸여 빛도 볼 수 없고 길도 보이지 않아요. 당신은 아무 것도 아녜요. 도시에서 생활을 구걸하는 가련한 벌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²⁴⁾

이렇게 힘들게 그는 귀향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고향은 변화가 없었다. 사람이 늙어갔고, 고향의 일손이 모자라 황폐된 땅이 늘어난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5년만에 만난 아내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나’ 앞에 서 있었다. 올해 스물 여섯밖에 안 되었지만 고된 농사일과 힘든 생활에 쪼들려 걸 늙어서 마흔이나 되어 보였다. 집안의 가물도 여전하였다. 마을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여전히 지속되어 가고 있었다. 달라진 것이라면 젊은 농사꾼이 없어진 것 뿐이었다.

최근에 들어 바로 마을에 남은 늙은이, 부녀자와 아이들이 끈질기에 거대한 농업을 지탱하고 있었다. 생활 때문에 장성들이 여러 타향으로 떠났던 것이다. 마을에 노인이 세상을 떠나도 인근 마을에서 상여를 질 젊은 남성도 모자랐다.²⁵⁾

23) 罗伟章, 『我们的路』, 앞의 작품, p.6.

24) 위의 작품, 같은 쪽.

25) 위의 작품, p.11.

이처럼 농촌의 폐쇄는 새로운 젊은 장성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이농향도를 택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들의 이농은 농촌의 폐쇄화를 진일보 가속화시켰다. “1989년 전에는 약 2,000만에서 3,000만에 달하였다. 1988-1991년 국가 경제 조정으로 약 1천만의 농민공들이 농촌으로 되돌아 왔다. 1992년에는 급속히 1천만으로 늘어났고, 1995년에 이르러 이미 5천만을 넘었다. 1995-1997년 국가 거시경제의 조정으로 또 1천만에 달하는 농민공들이 농촌으로 되돌아 왔다. 1997년 이후 농촌경제 상황은 좋지 못했다.” “지금(2002년) 고향으로 떠나고 땅을 떠난 농민공은 약 8000~9000만에 달한다.”²⁶⁾ 그리하여 고향에 남은 늙은이, 부녀자들에게 있어서 농사일은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일부분 땅들은 황폐해져만 갔다. 그러나 농민공들은 땅에 대한 미련을 지우지 못하였다. 大寶는 짐식구들을 만나자 5년간의 설움이 북받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말았다. 春妹의 말처럼 고향에는 적어도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었다. 그러나 집에 있으면 날이 갈수록 식구들에게 치욕만 더 가져다 줄 뿐이었다. 그리고 春妹를 제외하고 돈을 벌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春妹는 다시 돈벌이에 나선다.

大寶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부친 돈이 생활에 그 어떤 근본적인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음을 알자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딸과의 손가락을 걸며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향하고 만다. “나는 아무리 생각을 이리저리 굴러봐도 유일의 출로는 다시 이 따뜻하면서도 빈척한 땅을 떠나는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²⁷⁾ 다른 장성들도 마찬가지였다. 밖에서 여편네가 배가 불러 아이를 낳게 되어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이를 낳은 지 한달이 지나기 바쁘게 또 도시로 향하는 젊은 부부나, 탄광 가스 폭발로 왼쪽 팔을 잃은 남편이 상처가 아물자 곧 아내와 함께 도시로 흘러드는 농민의 삶은 고달픔 그 자체였다.

이처럼 귀향길 역시 이농향도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혀 짐문밖을 나가 지 않을 때는 바깥의 돈을 아주 쉽게 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정작 고향을 떠나면 또 집이 그림고 고향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고 제일 아늑한 곳이어서 금덩이로 진 집도 내 개굴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도시에서 찾지 못하는 존엄과 자유

26) 刘开明, 『边缘人』, 新华出版社, 2001, p.3.

27) 罗伟章, 『我们的路』, 앞의 작품, p.22.

를 고향이 줄 수 있는가? 부림소도 살 수 없고, 어린 애의 초등학교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데 무슨 존엄과 자유를 말할 수 있으랴?”²⁸⁾

이처럼 이농향도는 농민공에게 있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내일 바로 돌아올 수도 있”는, 쉽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였다. 농민공의 본성 때문에 그들은 고향의 토지와 평생토록 밀접한 연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사실 중국 농민공들은 신분에서 본다면 여전히 농민이다. 그들의 호구가 여전히 농촌호구로 되어 있고, 그들의 집도 농촌에 있으며 그들의 뭍으로 분배한 땅도 있었다. 그러므로 도시로 들어와 일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농촌에 정착지도 가지고 있는 특수 존재였다. 다른 면에서 볼 때 귀향은 작가들이 도시현대화의 물질성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문학 현대성의 추구와 고향과 마을이 대변하는 현대미학의 특수한 의미를 가지므로 여기에서의 “귀향”은 의미있는 것이었다.

이문구의 「우리동네」에서는 절대적 가난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사라지고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직면한 실정을 묘사하고 있다. 농촌공동체의 파괴는 도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졌다. 농민들은 일년 내내 농사지어봤자 회사원 두 달 월급밖에 안 되는 현실과 처음 사온 값에도 못 미치는 돼지 사육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누구나 예외없이 낯설고, 생소한 현실 공간에 놓이게 된다. 이곳의 농민들은 자신의 생활공간이 아늑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하루 빠라리 벗어나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척박한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건 그려, 나두 삼십 만원이나 들여 산 소를 여덟 달 맥여 사십구만 원에 줬을 게, 사료값 이십 만원에 때 놓구 보니 칠만원이나 간디가 읊데.”

소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두면 돌수록 손해보기로는 돼지 쪽이 더했다. 삼만원, 삼만오천원에 산 젓떼기를 반년이 넘게 길러 놓으니 사만 원도 안 보려고 하였다. 생돈 한 근에 담배 한 갑, 종가집 대사를 치러도 대가리 하나는 성하게 남던 백 근짜리 돼지가 이 달에는 이만팔천 원이었다. 게다가 이제는 저울도 없이 눈대중으로 값을 메기고, 그나마 규격돈은 비계가 두껍다 하여 아예 쳐바도 안 보려고 하였다.²⁹⁾

28) 위의 작품, p.24.

류상범 씨의 “그 논이 위째 노는 땅이야, 그 논은 죽은 땅이여 이놈덜아”라는 외침처럼 농촌의 경제적 토대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버렸다. 거기에 싼 농산물 가격과 비싼 공산품 가격은 결국 농민들을 도시로 내몰았고, 농촌을 떠난 농민들은 도시 변두리에서 도시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70년대의 한국과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농촌, 농업과 농민이란 ‘삼농’에 관한 정책적 지지도 농민으로 하여금 이농과 귀농이란 갈림길에서 선택을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개혁개방이래 중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을 지지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며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지지 정책들을 내놓았다.³⁰⁾ 며칠 전에 끝난 17기 3중전회의 중심 의제도 농촌 발전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정책 실시는 높은 의식의 관리층, 농민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지금 중국 농민공의 자질을 볼 때 기본 지식이나 교육 정도가 낮은 것만은 사실이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2005년도 도시 농민공의 문화 정도를 보면 초중 졸업생이 65%로 제일 많고 중등전문학교나 중등기술전문학교 졸업생이 21.6%, 초등학교 졸업생이 11.2%이며 문맹이나 반 문맹이 1.4%를 점하였다. 전문대나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0.7%에 불과했다.

정신적인 귀향에 비해 현실적인 귀향은 더 힘겹고 무거운 것이었다. 현실적 삶에서 볼 때 고향으로의 귀향은 시적 정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산문같은 풍경이 없을 뿐더러, 무거운 마음과 함께 도시와의 대비 속에서 농촌이 드러내는 형편없는 모양과 안타까운 아픔만 있을 뿐이다. 물론 어떤 농민공에게 있어서 고향에 대한 사랑은 고향에 돌아가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작가에게 있어서 자신의 시야를 사회의 불행과 밑바닥에 맞춘 이유는 이러한 불행과 밑바닥의 삶 자체가 문학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문학의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것은 문학의 현실에 대한 책임과 약속이기 때문이기

29) 위의 작품, p.196.

30) 이를테면 1982년 1월 1일 ‘사회주의생산책임제’에 관한 국무원 1호 문건을 위시해서 1983년 1월의 《当前农村经济政策的若干问题》, 1984년 1월의 《关于一九八四年农村工作的通知》, 1985년 1월의 《关于进一步活跃农村经济的十项政策》, 1986년 1월의 《关于一九八六年农村工作的部署》, 2004년 1월의 《中共中央国务院关于促进农民增加收入若干政策的意见》, 2005년 1월의 《中共中央国务院关于进一步加强农村工作提高农业综合生产能力若干政策的意见》, 그리고 2008년의 《关于切实加强农业基础设施建设, 进一步促进农业发展农民增收的若干意见》 등등을 들 수 있다.

도 하다. 그러나 불행만 쓰는 것은 문학에 마비된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성의 극단이 아닌 완벽한 인성을 보고 싶어 한다. 농민공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어도, 가고 싶은 마음이 급해도, 겪을 어려움이 많아도 따뜻한 온정은 영원히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한다. 그리고 끝없는 고난들의 틈새에서도 인성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농민공 문학 작품이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나위장(羅偉章)은 작품에서 작가와 농민공이 나란히 집으로 향하는 평생 잊지 못할 동행을 써냈다. 농민공이 고향에 돌아가는 열정어린 기분과 비한다면 현실의 농촌은 어찌면 그의 기를 꺾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늙어갔고 고향 마을은 더욱더 몰락해 있었다. 애기학교마저도 이제는 오직 담장 하나만 외로이 남은 것이 추운 바람에 곧 무너질 듯하였다. 소설에서 작가는 잔인한 현실묘사의 수법으로 서부 농촌의 황폐하고 가난한 풍경을 묘사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고향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설을 보내려던 이 남편의 기쁨도 잠시일뿐 눈앞에 펼쳐진 잔인한 현실은 그로 하여금 딸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가족과 고향을 떠나 도시로 흘러들게 만드는 광경을 가슴 아프게 만나게 된다.

5. 결론

오랜 세월동안 형성된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대립 구도와 사유 습관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충격으로 지금 차츰 변하여 가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의 변화가 경제 발전 속도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람들의 사유 방식의 변화와 전면적인 관념의 변화는 아직도 오랜 시일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대 도시와 농촌은 아직도 서로 어긋나는 가치와 관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정적이 아닌 변화의 시각에서 차츰 변화를 가져오는 농촌사회를 비롯하여 농민들을 바라보고 소설 작품에 형상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도시와 농촌은 이미 융합되기 시작하였고, 농민공은 이러한 융합 과정에 눈물겨운 고난의 행군과 함께 개혁개방과 함께 진행되는 현대화의 즐거

움과 그 와중에 겪게 되는 진통과 슬픔도 드러내고 있다.

농민공의 도시 사회무대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농촌과 도시의 두껍던 장벽은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새로운 생산관계의 구축과 함께 전통적인 농촌생활의 모습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농촌의 현대화와 함께 농민들의 도시생활과 물질적 현대화에 품은 희망도 겉면으로 확연히 표출되고 있다. 농촌의 변화와 함께 농민공이 도시에 들어온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농민공이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농촌을 떠난다면 중국 농촌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는가? 중국의 농촌과 농민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은 현대 중국이 해결해야 할 아주 시급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고, 따라서 작가들은 이러한 사회 변혁에 자신의 사명을 짊어지고 사변적인 작품을 창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중국 농촌은 옛날의 농촌이 아니고 그리고 농민도 다시는 이전의 농민이 아니다. 그리고 이문구의 「우리동네」와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분명 이문구가 우려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도 못한다. 罗伟章의 소설 결말로 이 논문의 결론을 지으려 한다.

“역사상의 어느 순간에 도시와 농촌은 이처럼 대치되면서도 융합되었다. …… 농촌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고 망설임이 없이 이러한 대치와 융합이라는 물결 속에 던져진 것이다. 우리는 다만 감수할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감수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 罗伟章, 「我们的路」, 选自《长城》, 2005年 第3期.
- 冉正万, 「奔命」, 《人民文学》, 1999年 第4期.
- 张抗抗, 「芝麻」, 《钟山》, 2003年 第5期.
- 胡学文, 「一个谜面有几个谜底」, 《草原》, 2005年 第5期.
- 里快, 「菜市」, 《草原》, 2005年 第4期.
- 王梓夫, 「死迷」, 《北京文学》, 2000年 第12期.
- 邵丽, 「明惠的圣诞」, 《十月》, 2004年 第6期.
- 裴蓓, 「南方, 爱你我说不出口」, 《小说月报·原创版》, 2005年 第4期.
- 孙春平, 「包工头要像鸟一样飞翔」, 《钟山》, 2003年 第2期.
- 孙惠芬, 「民工」, 《当代》, 2002年 第1期.
- 王手, 「乡下姑娘李美凤」, 《山花》, 2005年 第8期.
- 李肇正, 「傻女香香」, 《清明》, 2003年 第4期.
- 李肇正, 「姐妹」《钟山》, 2003年 第3期.
- 丁帆, 「‘城市异乡者’的梦想与现实」, 《文学评论》, 2005年 第4期.
- 李敬泽, 洪志纲, 朱小如, 艰难的城市表达—“城市叙事”三人谈, 文汇报, 2005年 1月 5日.
-
- 이문구, 『우리동네』, 민음사, 2000.
- 민족문화사 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 신중환, 『한국소설의 서술양식 연구』, 한국문화사, 2004.
- 심지현, 「1970년대 소설의 사회변동 수용 연구: 이문구, 윤홍길, 조세희의 연작소설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무웅, 「농촌현실과 오늘의 문학—朴敬洙作 〈凍土〉에 관련하여」, 《창작과비평》, 제 V 권, 제3호, 1970년 가을호.

中国网: China.com.cn

중국어 초록

进入现代社会以后, 中韩两国都经历了工业化和城市化的发展。工业化和城市化的急速发展, 给广大农村带来了前所未有的变化, 其中大量剩余劳动力的产生和往城市的流动, 着实成为蔚为可观的景象, 特别是在中国随之大量农民的流入, 新产生了‘农民工’这个最具中国特色的新词语。中国农民工这一极其普通的群体, 参与城市的经济社会活动, 为中国的工业化和城市化做出了极大的贡献, 但是与他们的劳动力付出相比, 他们的待遇和所处的环境是极不相称的。“农民工”, 这个称谓的背后, 隐藏着太多的艰辛与苦涩, 不公与无奈。

同样在韩国的70年代工业化, 城市化革命中, 农村和广大的农民成为了无可奈何的牺牲品, 他们在韩国城市化中决不可能成为主体, 农村被工业化所遗忘, 农民则被城市化所歪曲, 他们失去了世代生存的乐园, 随着现代化的加速, 传统的风俗习惯或文化得到否定, 人们赖以生存的广大农村也随之解体。

在中韩两国的这种现代化背后, 都存在市场原理的作用。传统农村社会的解体或大量农民的跨区域流动, 迅速进入了小说叙事当中。在70, 80年代的韩国, 诸如李文求, 黄皙暎, 赵世熙, 宋基淑等作家在自己的创作中都反映了这一时期的重大社会变革, 以及在这种变革中的农村社会的解体, 农民的破产和无产阶级化的过程。在中国, 80年代, 特别是随着改革开放更加深入的90年代而出现的大量农民工, 使作家都把创作瞄准了广大的农村以及农民, 去关注农村社会的变化, 塑造农民工的形象, 以此来反映了中国社会的巨大变革。譬如, 从2000年前后开始国内绝大重要的文学刊物, 重要报纸都在刊登和报道城市农民工的生存境遇和劳动环境, 影视作品也极力塑造农民工的形象, 为政府的决策提供了现实依据。像贾平凹, 阎连科, 刘庆邦, 罗伟章, 孙惠芬, 李肇正, 荆永鸣等作家都创作了反映农村变革和农民工生活的作品。

本论文将以罗伟章和李文求的农村, 农民小说为分析文本对象, 以比较方法分

析中韩两国在现代化过程中农村社会以及传统价值的演变在小说作品中的叙事方式，分析现代化冲击下的农民的流动特点，从而探索两国农民小说的异同点以及产生此类现象的社会文化原因，试图梳理中国农民工的形象特点以及未来的走向或出路，对农民工带来更加全面客观的认识。

주제어 : 중한(中韩), 농민소설(农民小说), 비교(比较)